



공동체 소식



연중 제 33주일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하느님, 아드님의 살아 있는 성전에
온 인류를 모아들이시니, 저희가 덧없는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인내로써 생명을 얻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김정원(베드로), 김말자(세실리아) 가정
- 김도영, 박희영(카타리나) 가정

평신도 주일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교회헌장, 31항)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관련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 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목 방문을 위한 9일 기도

- 기간 : 11/15(금) ~ 11/23(토) 오후 9시, 각 가정
- 방법 : ① 가정 제대에 불을 밝힌다. ② 성호경을 긋고 지향-“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사목방문을 잘 준비하도록 은총을 청합니다”-을 말한다. ③ ‘사제를 위한 기도’ ④ 묵주의 기도 5단(‘환희의 신비’부터) ⑤ ‘성모 찬송’을 바친다.

공동체 준비 사항

- 평협 / 재정분과 / 교육분과 보고(서면 작성)
- 전례분과 : 꽃다발 및 선물 준비
- 행사분과 : 체육관 셋팅 및 엠프 설치
- 구역분과 : 안내 및 음식 준비
- ☞ 공동체 협조 사항 : 미사 시간 엄수(적어도 10분 전), 개인 강복 혹은 사진 촬영 금지

기타

- 11월 달, 맨하턴과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본당 전례 관계로 쉽니다.
- 오늘(11/17) 점심식사 후, 성당 대청소가 있습니다..
- 오늘, 전례 연습 및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50	216	163/174	451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이우영(가브리엘) 이원준(요 한)	문석찬(요 셉) 문호진(안토니오)
차주	십자가 : 전종준(루치오) 향 : 안광민(야고보), 정병훈(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 젤 라)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조장군(바 오 로)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지은경, 김재은, 윤윤아, 김정들
차주	사목 방문

헌금 봉사자

금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차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10	90명	417불	1,910불
최복순, 김정원, 현교정, 홍순익, 안동현, 김현동, 차호섭, 정석원, 김정환, 정준구, 전영민(총11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부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끝장날 것만 같은 시기를 겪더라도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화해설

성전 파괴 (니콜라스 푸생, 1637년, 유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7-19)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말라 3,19-20 <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르리라. >



공 평 하 게 백 성 들 을 다 스 리 - 시 러 주 님 께 서 오 시 리 - 라

-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노래하여라. 수금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나팔에다 각적 소리 한데 아울리면서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한껏 즐겨라. ◎

- 바다에 소리쳐라 그 안의 모든 것도 누리여 소리쳐라 거기사는 모든 것도 강물들 손뼉치고 산도 함께 춤추어라. ◎

- 주님께서 오시나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께서 오시나니 당신께서는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

제 2 독서 : 2테살 3,7-12 <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복 음 : 루카 21,5-19 <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평신도의 소명”



여러분도 다 기억하는 우화입니다. 옛날, 개미와 베짚이가 이웃에 함께 살았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먹이가 없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일했고, 베짚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개미를 비웃기라도 하듯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덧 매섭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며 먹이를 쌓아둔 개미는 따뜻한 집안에서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름을 보낸 베짚이에겐 비참한 현실과 때늦은 후회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고 먼 나라의 자연재해나 전쟁 등은 관심 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조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으로 어떠한 삶의 기쁨도 즐길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마침 평신도 주일로서 세상 안에서 현세 사물을 비추고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평신도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2012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자 수는 5,361,369명이고, 성직자 수는 4,788명이니 교회구성원의 99.9%가 평신도인 셈입니다. ‘개미’ 군단을 떠올리게 하는 이 수치는 평신도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땀과 노력과 희생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8)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베짚이의 낙천적 여유와 더불어, 은근과 끈기의 정신으로 이 땅의 복음화와 하느님나라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서울대교구 김영국 요셉 신부 -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어차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면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베짚이처럼 살아야 할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과 가족의 안녕이 최고의 가치일 뿐, 가까운 이웃들의 불행이나 고통은 말할 것도 없



물질 - 먼저 드리십시오

오스트리아가 낳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요 작곡가인 프리츠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 1875~1962)는 본래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음악을 공부한 동기는 흥미롭습니다. 그 동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악이 대중화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던 그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한 곡들을 작곡하고자 애썼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거절했던 음악가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의 독특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데, 크라이슬러는 비싼 출연료 받기를 거부했고, 비싼 음식 대접받기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분의 돈은 교회나 사회사업 기관에 아낌없이 현금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을 언제나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돈은 하느님이 자기에게 잠시 맡겨 준 공적인 것이지 자기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따뜻한 인간미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술가로서 흔하지 않은 인격적인 존경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주는 자로서 살고자 했지만, 실상은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을 들으면서 그의 사랑의 실천을 기억합니다.



제 7절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62.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고 기도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당신의 교회 안에 현존하지만, 아직은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루카 21,27) 오시는 왕의 지상 내림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부활)로 악의 세력의 뿌리는 정복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할 때까지, “의로움이 깃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례하는 교회는 자신의 성사들 안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딸린 제도 안에서 지나갈 이 현세의 모습을 지니고, 아직까지 신음하고 진통을 겪으며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기 위하여 특히 성찬 전례 중에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2,20)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1항).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기다려 온 메시아 왕국이 영광스럽게 세워질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결정적인 질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은 성령과 증거의 때이지만, 또한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싸움이 시작되는 “재난”과 악의 시련으로 얼룩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기다림과 깨어 있음의 시기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2항).